

오늘 나의 작은 정성이 민족의 내일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실천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우유를 권하는 마음으로, 선죽교 앞 그 개성 어린이의 손

오늘 나의 작은 정성이 민족의 내일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실천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에도 우유 한잔을 쥐여주시길...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우유를'



정 병 국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선 자기 몸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결코 그릇된 말은 아니라는 게 나의 지론이다. 때문에 연중 의정활동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우유 마시기' 만큼은 늘 빠뜨리지 않고 챙겨왔다. '우유 마시기'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활력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에너지 제고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은 '우유의 날' 이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2001년 처음 6월 1일을 '세계 우유의 날'로 정한 이래 세계 3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매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더구나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낙농 관련 단체들이 북한 어린이에게 장기적으로 우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을 선포하여 몽글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

1995년 이후 지속된 대북식량지원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영양실조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아직 세계 수준에 비하면 북한 어린이의 신체상태는 열악하기만 하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아동기금(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 중 체중미달 어린이의 비율은 23%에 이르고 특히 임산부의 3분의 1 가량이 영양결핍이나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남한 어린이에 비해 북한 어린이들은 신장이 평균 27cm 작고, 체중은 10kg 적다고 한다.

“통일우유보내기운동”에 바란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시장 바닥의 흙탕물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남들이 먹다 바닥에 떨어뜨린 국수가락을 주워 비닐봉지에 모으는 바짝 마른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앓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어린이는 다가올 내일을 열어갈 미래의 주인공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지원 특히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은 북한의 장래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2의 식량인 우유를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는 다가올 내일을 열어갈 미래의 주인공이다.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은 북한의 장래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사랑의 우유가 북한동포에게 보내져 사랑과 건강이 전해졌으면 한다.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